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이 미 숙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국 길 숙*(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부천시 소재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 각각 2 개씩을 선정하고, 1학년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분석대상은 497명(남학생 169명, 여학생 328명)이다.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 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민하영(199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개방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척도를 각각 10문항씩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김충희(1995)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t 검중, oneway ANOVA와 Duncan test, 그리고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수별로 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동성인 아버지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일 때는 고졸 내지 대졸 이상에 비해 문제형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청소년 자녀가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다. 또한 인문계보다 실업계 자녀의 아버지가 개방형 의사소통을 더 적게 하며,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 점수를 살펴본 결과, 중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분위기가 화목하다고 지각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부모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부와 모 양쪽 모두 자녀와 문제형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부정형 의사소통 유형에 속할 때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어느 한 쪽 부모가 자녀와 부정형의 의사소통을 할 경우 다른 한 쪽 부모가 자녀와 긍정형의 의사소통을 해야하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부와 모는 서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